

<제5강>

중등학교 임용고사 기출문제 풀이

<2008 학년도> 8. 다음은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 자음 분화의 기준과 자음 동화의 음운론적 성격, 자음 체계’ 등을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해 만든 학습 자료이다. 주제별로 알맞은 탐구 내용을 쓰시오. [4 점]

(가) 국물→[궁물], 먹는→[명는], 부엌만→[부엌만], 휴만→[휴만], 단는→[단는], 짓는→[진는],
 맞는→[만는], 꽃망울→[꼇망울], 밥물→[밤물], 답만→[담만], 앞마당→[암마당], 밟는→[밤는]

(나) 건강→[경강], 맡기다→[막끼다], 손가락→[숙까락], 옷감→[옥감], 문법→[뭉뻬], 신문→[심문],
 낮부터→[납뿌터], 꽃밭→[꼇뻬], 감기→[강기], 꼼꼼하다→[꽁꽁하다], 밥그릇→[박끄륜]
 ※ (나)의 발음은 수의적인 것으로 표준발음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다) 洪興ㄱ字꼳, 君君ㄷ字꼳, 侵침ㅂ字꼳 <훈민정음 언해>

자음의 특징	모음은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은 상태로 나는 소리인 반면,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곳에서 일정한 방식으로 장애를 받아 나는 소리이다.
↓ ↓	↓ ↓
자음 분화의 기준	
↓ ↓	↓ ↓

(가)와 (나)의 음운론적 성격 차이	(다)의 사잇소리 표기 원리
----------------------	-----------------

<길잡이>

1. 자음 분류 :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는 위치(=조음 위치)와 장애를 받는 방법(=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
2. (가)는 조음위치는 같으나 조음방법이 바뀌는 비음동화(예에 따라서는 음절끝소리현상이 적용된 뒤에 비음동화를 경험하기도 함.)

(나)는 조음방법은 같으나 조음위치가 바뀌는 현상 (앞줄은 양순음화현상이고 뒷줄은 연구개음화 현상)

3. 다음의 자음체계표 참조.

[자음 체계표]

조음위치 조음방법	순 음	치 조 음	구 개 음	연구개음	후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평 경 격 음 음 음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			ㅈ ㅉ ㅊ		
마찰음		ㅅ ㅆ			ㅎ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4.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에서 한자어 사잇소리 표기는 앞 글자의 종성이 불청불탁자이고 뒷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불청불탁자와 같은 조음위치의 전청자를 사잇소리 표기 글자로 이용함. 다음 표 참조.

조음방법 조음위치	전청(全淸)	차청(次淸)	불청불탁(不淸不濁)	전탁(全濁)
어금닛소리(牙音)	ㄱ	ㅋ	ㅇ	ㄲ
혓소리(舌音)	ㄷ	ㅌ	ㄴ	ㄸ
입술소리(脣音)	ㅂ	ㅃ	ㅁ	ㅄ
잇소리(齒音)	ㅅ, ㅆ	ㅈ, ㅊ		ㅆ, ㅊ
목구멍소리(喉音)	ㅎ	ㅎ	ㅇ	ㅎ
반혓소리(半舌音)			ㄹ	
반잇소리(半齒音)			ㄷ	

<1999-2 학년도> 8.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말 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점)

<보기>

- (가) 닭다[닥따] 키웁[키웁] 옷[옉] 옷다[웉:따] 있다[읷따] 짓[전]
 빗다[빉따] 꽃[꼇] 쫓다[쫓따] 솔[솔] 뺨다[뺨:따] 앞[압] 덮다[덥따]
 (나) 녀[녉] 녀과 [녉꽈] 앓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곶[외곶] 핥다[할따] 값[갑]
 (다) 뺨다[뺨:따] 뺨소[뺨:쏘] 뺨지[뺨:찌]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똥글다]
 (라) 젓으로[저즈로] 젓어미[저더미] 곁에 [거테] 곁웃[거돋] 헛웃음[허두슴]

<조건>

- (1) <보기>를 자료로 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할 것.
 (2) <보기>의 각각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길잡이>

1. 음절끝소리규칙 :

- ① 우리말에서 음절말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뿐이고, 이 밖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② 우리말의 음절말에 장애음이 오면 평파열음 ‘ㄱ, ㄷ, ㅂ’ 중의 하나로 바뀌는 현상으로, 음절말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뿐이다.

2.

(가) :

ㄱ	ㄴ	ㅋ		ㄱ		ㄱ	ㄴ		ㄱ
	스	, ㅍ	, ㅈ	, ㅊ	, ㅌ	, ㅍ	, ㅌ	→	
	ㄷ		/ ----- {#, C}				ㅂ		ㅂ
	ㅌ						ㅂ		ㅂ

(나)

ㄱ	ㅌ		ㄱ		ㄱ	ㄴ		ㄱ
	ㄴ		→		ㄴ		/ ----- {#, C}	
	ㄹ	, ㄹ	, ㄹ			ㄹ		
	ㅂ					ㅂ		ㅂ

(다)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고, ‘넓-’은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처럼 ‘넙’으로 발음한다

(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이면 끝자음이 그대로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되어 발음되고, 실질 형태소이면 음절의 끝소리가 되는 일곱 자음 중의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참고> (나)와 (다)는 자음군단순화규칙으로 탈락 현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발음되는 자음은 7자음 중 하나라는 면에서는 음절끝소리규칙과 성격이 같다. 음절끝소리규칙과 자음군

단순화규칙이 경쟁을 하게 되면 음절끝소리규칙이 먼저 적용된다.

<2007 학년도> 【9~10】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짓어미[저더미], 닳다[닥따], 깎아[까까], 옆얼굴[여벌굴], 높여[노펴], 낱알[나:달],
쫓지[쫓찌]. 키웁[키웁], 밭에[바테]

(나) 英 곶부리 영(훈몽자회 하:2)

낮바물 瑤琴 ㅼㅅ야 ㅼㅅ다라 日夜偶瑤琴 (두시언해 초간본15:3)

ㅅㅅ히 ㄴㅅ가ㅼㅅ 업시 ㅎ가지로 다ㅎ시며 (월인석보 2: 40)

九重에 드르샤 太平을 누리싹 제 이 ㅼㅅ들 ㄴㅅ디 마르쇼셔 (용비어천가110장)

네 야기 낱노라 ㅎ야 나를 ㅎㅎ호려 ㅎ느니 (월인석보10:25)

(다) bookmaker[bukmeikeə] 북메이커, out[aut] 아웃, film[film] 필름,
ring[rin] 링, hint[hint]힌트, gap[gæp] 갭

9. 다음은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의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표이다. (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아래의 빈칸 ㉠~㉣을 채우시오. [3점]

<조 건>

- ‘어휘 예’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모두 쓸 것.

분류	어휘 예	규칙
A ㉠		받침 ‘ㄱ, ㅋ’, ‘스, ㅍ,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B ㉡		홀받침나 쌍받침이 (㉢)와/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C ㉣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ㅛ’들로 시작되는 (㉢)이/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10. (가)~(다)를 참고하여 현대 국어, 중세 국어, 외래어 표기법에서 받침소리의 발음과 표기의 관계를 <조건>에 따라 설명하시오. [3점]

<조 건>

- 받침소리로 발음된 자음들, 받침을 표기한 글자들을 쓸 것.
- 받침 표기의 원리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 현대국어:

• 중세국어:

• 외래어 표기법:

<길잡이>

9. 생략

10.

- 1) 표의적 표기법 :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더라도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형태소의 원래의 모습을 밝혀 적는 방식으로 현대국어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기법이다. 이 표기법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어서 의미 파악이 쉬우므로 독서의 능률을 높일 수 있으나 원래의 형태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어려운 표기법이다. 모든 자음이 받침글자로 사용된다. 다만, 발음은 일곱 가지로만 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2) 표음적 표기법 : 한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 그것을 표기에 반영한다. 즉,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식으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채택한 표기법이다. 이 표기법은 발음되는 대로 적기 때문에 적기에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뒤 문맥에 의존하여 의미를 파악해야 하므로 독서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세국어에서 받침에 사용되는 글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여덟이며, 근대국어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일곱 자가 사용되었다.
- 3) 외래어 표기법 : 받침 표기로 ‘ㄱ, ㄴ, ㄹ, ㅁ, ㅂ, ㅅ, ㅇ’ 일곱 자만을 사용하기로 규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표음적 표기법을 채택한 것이다. 받침글자는 근대국어 7종성과 같다. 외래어를 수용할 때, 받침의 발음으로는 위의 일곱 받침으로만 받아들인다. 다만, 현대국어와 달리 받침에 ‘ㅅ’을 사용하는 것은 'robot'은 [로봇], [로봇-도]가 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하면 [로보시]로 발음되어 음절말의 't'가 'ㅅ'로 발음됨을 알 수 있다.
‘꽃’이 [꼇], [꼇-또], [꼇-만], [꼬치]’으로 발음되어 ‘꼇~꼇~꽃’으로 교체하지만 ‘꽃’을 기본 형태로 설정하는 이유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결합할 때 ‘꼇’이 되기 때문이다.

<2003 학년도> 5. 다음에 제시된 예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총 7점)

(가) 밥물, 먹는, 만며느리, 잡는, 받는다, 국물

(나) 앞날, 값만, 앞마당, 밟는, 읊는, 없는, 값 매기다
 밭머리, 있는, 맞는, 쫓는, 꽃망울, 붙는, 놓는, 옷 맞추다
 부엌문, 흠냄새, 깎는, 굽는, 흠만, 책 넣는다, 흠 말리다

5-1. “언어 자료를 통하여 탐구 능력을 기른다.”라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의 자료로 ‘문제 제기 → 가설 설정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이라는 탐구 학습 과정에 따라 교수 학습을 하려고 한다. 다음 표의 ‘가설 설정’과 ‘가설 검증’의 내용을 적고, ‘결론 도출’의 를 채우시오. 단, 가설 설정은 한 문장으로 쓰시오. (5점)

문제 제기	(가)의 받침 ‘ㅂ, ㄷ, ㄱ’이 비음으로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현상을 규칙화할 수 있을까?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	

5-2. (나)에서는 비음화 규칙 이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두 규칙을 적용할 때, 그 순서가 중요한 까닭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2점)

<길잡이>

5-1.

1. 가설 설정 : (가)를 바탕으로 비음동화의 개념을 진술

<예시> 파열음 ‘ㅂ, ㄷ, ㄱ’이 비음 ‘ㅁ, ㄴ’ 앞에서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인 ‘ㅁ, ㄴ, ㅇ’으로 각각 바뀐다.

2. 가설 검증 :

(1) ‘ㅂ, ㄷ, ㄱ’이 비음 ‘ㅁ, ㄴ’ 앞에서 ‘ㅁ, ㄴ, ㅇ’으로 바뀐다는 설명.

(2) 비음동화는 조음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방법만 바뀌는 현상이라는 설명.

3. 결론 도출 : 규칙화

(1) ㅂ → ㅁ / _____ ㅁ, ㄴ

 ㄷ → ㄴ / _____ ㅁ, ㄴ

 ㄱ → ㅇ / _____ ㅁ, ㄴ

(2) { 평파열음, α조음 위치 } → { 비음, α조음 위치 } / _____ 비음

<평파열음이 후행하는 비음에 동화되어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으로 바뀐다.>

<2001 학년도> 5. <보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7점)

..... <보 기>

- ①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밭이→[바치], 붙이다→[부치다]
 - ② 마디(節)→[마디], 어디→[어디], 디디다→[디디다], 티끌→[티끌]
-

5-1 ①을 바탕으로 구개음화를 정의하고, ①과 달리 ②의 어레들이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까닭을 국어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3점)

5-2 구개음화가 동화인 까닭을 모음 'ㅣ'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구개음화를 동화의 유형별로 기술하시오. (4점)

<길잡이>

5-1.

1. 구개음화 : 형태소의 '끝자음'인 'ㄷ, ㅌ'이 'ㅣ'(또는 반모음 y)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 앞에서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변하는 현상.
2. 구개음화 규칙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규칙의 순서
 - 1)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근대국어시기)에 일어난 구개음화 규칙 :
[ㄷ, ㅌ] → [ㅈ, ㅊ] / ____ {이, ㅣ} (순수음운규칙으로 형태소내부에서 일어남)
 - 2) 19세기에 일어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규칙(무조건적 규칙)
{이, 의} → 이
 - 3) 현대국어 구개음화 규칙 : 근대국어 구개음화 규칙과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
[ㄷ, ㅌ] → [ㅈ, ㅊ] / ____ + {이, ㅣ}형식형태소

5-2.

1. '이/ㅣ'의 조음위치는 경구개부위이다. 'ㅈ, ㅊ'도 경구개부위에서 조음된다. 'ㄷ, ㅌ'은 치경음 (=치조음)이다.
2. 동화의 유형 : 동화의 방향, 동화의 정도, 동화의 거리, 동화의 필연성 등.

<2002 학년도> 5.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총7점)

고향 마을에는 산길 끝으로 나룻터가 보였다. 그곳에는 뱃사공도 없는 빈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고기배였다. 우리집 뒷뜰이나 뒷산에서 보면 퇴락한 배의 모습이 보였다. 밤에는 은구슬이 달린 어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밤밥(夜食)을 먹기도 하였는데, 풋밤이 섞인 밤밥이나 메밀국수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깻잎에 조개살이 들어 있는 국도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콧날이 시큰해진다.

5-1 <보기>에서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에 어긋난 예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그리고 <보기>에 나오는 어휘를 바탕으로 하여 ‘한글 맞춤법’의 사이시옷 표기 규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시오. (3점)

5-2 학교 문법의 사잇소리 현상의 정의를 쓰고, <보기>에 나오는 어휘를 예로 들어 사잇소리 현상의 규칙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길잡이>

5-1.

1. 나룻터 → 나루터, 고기배 → 고깃배, 뒷뜰 → 뒤뜰, 조개살 → 조갯살

2.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2)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나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ㄴ’ 음이나 ㄴ음 음이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3)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로 ‘곶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횃수’가 있다.

5-2.

1. 정의 :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의 말의 끝소리가 올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올림 예사소리인 경우에 뒤의 안올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2. 사잇소리 현상의 규칙성

1) 음운 조건은 같아도 사잇소리 현상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사잇소리 현상의 개입 유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3) 음운 환경이 같아도 개입되는 경우가 다르고 또 개입 여부에 따라 뜻이 달라지므로 뚜렷한 규칙성이 없다.